

‘된장, 비만과 고혈압 예방 효과 있다’

전북대 우하영 대학원생 연구성과 발표 ‘최우수상’

전북대학교 우하영 대학원생(식품영양학 전공 석사과정·지도교수 차연수)은 전통장류인 된장이 비만과 고혈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성과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 대학원생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이



고지방 및 고염을 섭취한 쥐의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RAS) 조절에 미치는 영향(Improving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soybean paste (Doenjang) on Renin-angiotensin system (RAS) Regulation in rat with high fat diet and/or high salt diet)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된장이 소금 함량이 높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비만과 고혈압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리나라 전통발효장류는 소금 함량이 높아 고혈압 발병 등의 원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고염이 함유된 된장의 소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통발효식품에는 고염이 첨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조절함으로써 고혈압 유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코리안 페레독스’라 정의하고,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건강기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하영 대학원생은 “우리 전통 장류가 많은 이로운 점에도 불구하고 고염으로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치부되는 점이 아쉬워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전통 장류의 진면목을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심포지움 및 정기학술대회’는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1500여명이 참석하는 식품영양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정진영 대학원생,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선정

탁월한 연구 성과로 추가 선정 영예... 최장 5년간 연 3천만원 지원

전북대학교 정진영 대학원생(공대 전자공학부 박사과정·지도교수 이지훈)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9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 D. Fellowship)’에 선정됐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이다. 학위과정 기간 동안 연 2천만 원의 학술 활동비와 1천만 원 이내의 등록금을 최장 5년 간 지원받게 된다. 정진영 대학원생은 이번 지원을 통해 ‘나노구조를 갖는 유연재료의 form birefringence 기반 역분산 리타터 필름’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장은성 기자

이 연구는 가시광선 파장보다 짧으면서 이방성을 갖는 나노구조를 형성할 때 발생하는 복굴절(birefringence)이 역분산 특성을 갖도록 하는 소자를 개발하는 것으로, 차세대 광학 소자 및 디스플레이 소자로서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연구 분야다. 정진영 대학원생은 전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대학원재학 기간 중 제 1저자로서 4편, 참여저자로서 4편의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국내외 학회에서 3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 대학원생은 석사과정부터 BK21+ HOPE-IT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정용재 교수)의 지속적인 장학 지원을 받아왔으며, 해당 사업단은 올해만 3명의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수상을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11월 중 2020학년도 전주 관내 중학교 신입생 배경원서 작성 및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신입생 지원자격은 전 가족이 전주시 학교군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이며, 전주시 학교군 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타 시·군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전 가족이 전주시 학교군 내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하다. 해당 학생은 응시원서 작성기간인 11월 4일~15일에 원서를 작성해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11월 20일~27일까지 전주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하면 된다. 검정고시 합격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이 기간 동안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개별 접수하면 된다. 원서 작성 후 거주지가 이전된 학생의 경우 원서 추가접수 기간인 12월 16일~27일에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2020년 2월 29일까지 전주시 학교군 내에서 입주(이사)가 확정된 학생의 경우 입주(이사)예정확인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원서작성 기간 및 추가접수 기간에 이사예정 주소로 원서 작성 가능하다. 타 시·군에서 2020년 1~2월 중 전주시로 이사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원배정이 아닌 재배정(추가배정)을 통해 전주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재배정(추가배정)은 2020년 1월 중에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고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0월 31일~11월 8일까지 7박 9일 간의 일정으로 해외이동학을 떠났다.

전쟁과 평화를 몸으로 느끼고, 찾아가는 여정

고산고, 해외 이동학습 실시 베트남 호치민 투숙고와 교류

도내 유일 공립 대안고인 고산고등학교(교장 장경덕) 2학년 학생들은 10월 31일~11월 8일까지 7박 9일 간의 일정으로 해외이동학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번 해외이동학습은 고산고등학교가 2018년 신입생부터 대안학교로 전환하면서 마련한 대안 교과의 하나인 ‘통합기행’의 2학년 과정이다. 또한 또래 학생과의 교류, 교육봉사 활동, 문화탐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특히 고산고의 교육철학 중 하나인 ‘평화’를 주제로, 베트남의 호치민시

지역이 그 무대이다. 구찌터널과 전쟁기념관, 통일궁 등을 통해 전쟁과 평화를 몸으로 느끼고, 무이네 지역에서의 해변정화활동과 요정의 샘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가 전지구적 과제임을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동학습의 백미는 고산고와 교류협약을 체결한 투숙고등학교와의 교류다. 지난 1월 1차 방문을 통해 교류의 의사를 확인했고, 7월 2차 방문으로 학교장 간의 협약 체결이 이뤄진 바 있다. 투숙고등학교와의 교류는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은 주로 체육교류가 이뤄지며, 둘째날은 고산고 학생과 투

숙고 학생이 1:1로 연결돼 하루 종일 호치민 시내를 탐방하는 실질적 교류의 시간이다. 마지막날은 켈리그라피, K-POP, 전통놀이, 탈 만들기, 네일아트, 한국음식 등 7개의 부스를 운영해 양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해외이동학습에는 김용락 교감을 단장으로 교원 5명과 38명의 학생 등 모두 43명이 참가한다. 한편, 고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경강 물줄기’를 따라 통합기행을 3박4일 간 진행한다.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행은 만경강의 발원지인 진안 소태정 ‘남샘’에서부터 길게 ‘새창이다리’까지 약 78km를 걸으며 지역의 자연생태, 역사, 문화 등을 익힌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같은 공간, 다른 아이’ 교육지원 강화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같은 공간, 다른 아이’의 교육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통합학급 미설치교에 전일제 통합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담임(담당)교사, 통합교육지원단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유·초·중·고 통합학급 담임(담당)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유소리 교사(전주용소초)가 강사로 나서 통합교육 실천사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고, 분담별 사례나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수에 앞서 지난 24일, 통합교육지원단은 사전모임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받아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초·중·고 통합학급 담임(담당)교사의 통합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를 안내해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미안마 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 가져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최근 미안마 교계 지도자인 SAM SON 부부를 초청해 미안마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AM SON 부부, 홍정길 학교법인 신동아 재단 이사장, 이호인 전주대 총장,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 미안마 학생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유학생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미안마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미안마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전대학을 두 번째 방문한 SAM SON 목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

을 향해 “전주비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미안마 학생들이 미안마의 미래이자 비전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투투뽀(건축과 1년) 학생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유학생생활을 하는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다시 힘을 얻었다”면서 “졸업 후 미안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학업에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2016년도부터 미안마 까진주에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78명의 미안마 유학생이 5개 학과에 재학 중이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